

대학생들의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장경애¹, 허성은^{2*}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Kyeong-Ae Jang¹, Seong-Eun Heo^{2*}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일부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하였다. 노인 동거 경험($p<.001$),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p<.01$),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p<.001$)이 있는 학생들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노인 관련 경험이 정서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 동거 경험($p<.001$),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p<.01$)과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p<.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차별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 동거 경험($p<.001$),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p<.01$)과 노인 관련 강의 수강경험($p<.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세대 간의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에서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및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노인의 정서적 회피, 노인 차별주의, 노인동거 경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노인 대상 봉사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n ageism in college students in Busan and Ulsan area. The total score of ageism was lower in the students with the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p<.001$),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p<.01$), and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in the elderly on the emotional avoidance was significant in the students with the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p<.001$), volunteering for the elderly($p<.01$), and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p<.05$). The effect on ageism was significant in the students with the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p<.001$),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p<.01$), and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p<.05$). Therefore,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and volunteering for elderly to build social, physical, and emotional empath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and the point of view on the elderly.

Key Words : Emotional avoidance of the elderly, Ageism,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Taking the elderly-related classes,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추이는 전 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한국 사회를 위협하

*Corresponding Author : Seong-Eun Heo (gjtjddms0928@naver.com)

고 있다[2,3].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주축이자 노인 부양의 주체가 되는 젊은 세대의 청년 실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노인 혐오 및 노인 차별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2,4]. 즉,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 인구로 전망되는 2026년의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은 공존의 부조화에 따른 젊은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 세대 간 사회적 갈등 현상에 대한 해결은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2,3].

노인 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편견과 억압의 한 형태로 연령에 대한 차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5]. 이는 노인 및 노화 과정을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으로 차별 행동을 함에 따라 노인과 분리되고 싶고 노인을 거부하는 심리적 욕구이다[6,7]. 이에 노인 차별주의는 인권 존중 원칙에 위배되어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오늘날 민주사회에서의 세대 간 화합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8]. 또한, 노인 차별주의는 인종 및 성 차별주의와 달리 고정된 피해 집단이 없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차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8,9].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젊은 세대인 대학생의 노인 차별 의식과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9].

전통적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 세대 간 소통이 가능했던 사회였다[4]. 그러나 산업사회에 의한 도시화는 세대 간 접촉 교류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탈 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노인세대와 접촉 기회가 제한적이고 사회적 규범이 낮은 젊은 세대의 노인 차별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2,4,10,11]. 즉,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간 접촉의 기회가 제한될수록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증대하여 세대 간 이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세대 간 접촉 교류의 제한은 노인 차별주의의 요인이 될 수 있다[4]. 결국,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의 장이 형성된다면 세대 간 이해의 폭이 넓어져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물론 노인 차별의식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1,12].

노인 세대와의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을 형성하여 세대 간 간격을 좁히고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12-16], 대학에서 노인 관련 강의를 수강하거나 대학생의 노인 대상 자원봉사와 같이 대학 내 여러 물질·인적 자원을 활용하였을 때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노인 대상 봉사활동은 봉사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노인 및 노화,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물론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노인 차별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2]. 이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은퇴자 공동체 사업을 수행(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7].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세대 갈등을 넘어 노인 차별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 및 대학생의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면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2]. 이에 대학생과 노인 세대 간의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에서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및 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노인 차별의식의 제고 방안은 물론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복지정책 마련을 모색하여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12월 27일 까지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과 조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해하고,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0부의 설문지 중 성실히 답변한 20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노인 차별주의 측정은 이[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근거로 연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총 12개 문항으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을 대하는 정서적 회피와 차별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인 관련 경험은 노인 동거 경험 유무,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유무,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 유무로 분류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의 노인관련 경험이 노인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 차별주의를 종속변수로 하고, 노인 관련 경험인 노인 동거 경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의 조건하에 최소 표본크기는 172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0명으로 선정하였다.

노인 차별주의 Cronbach's α 는 0.826,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회피 0.819, 차별 0.678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설문 도구의 내적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 남자 26.3%, 여자 73.7%로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 37.3%, 4학년 27.8%, 1학년 20.1%, 2학년 14.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4세 80.4%, 25~30세 19.6%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Male	55	26.3
	Female	154	73.7
Grade	1	42	20.1
	2	31	14.8
	3	78	37.3
	4	58	27.8
Age	20~24	168	80.4
	25~30	41	19.6
Total		209	100.0

3.2 노인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노인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Table 2와 같다.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2.02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2.36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 전체 점수는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 2.22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 2.56점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서적 회피의 세부항목 중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18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66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1.91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52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차별 전체 점수는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 1.74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 2.07점으로 나타났다($p < .001$). 차별의 세부항목 중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1.41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1.87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50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3.23점으로 나타났다($p < .001$).

Table 2. Ageism by the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Characteristic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P
	Yes(N=86)	No(N=123)	
	M±SD		
1	2.18±0.84	2.66±0.82	<0.001***
2	2.35±0.94	2.69±0.90	0.010*
3	1.91 ±0.96	2.52±0.86	<0.001***
4	2.72±0.96	2.95±0.66	0.042*
5	1.69±0.84	2.27±0.96	<0.001***
6	3.00±0.89	2.59±0.87	0.001**
7	1.67±0.80	2.24±1.01	<0.001***
Emotional avoidance	2.22±0.61	2.56±0.60	<0.001***
8	1.41±0.73	1.87±0.90	<0.001***
9	2.50±0.96	3.23±1.33	<0.001***
10	1.32±0.60	1.52±0.58	0.020*
11	1.55±0.77	1.56±0.90	0.884
12	1.94±1.10	2.18±0.77	0.063
Ageism	1.74±0.48	2.07±0.52	<0.001***
Total	2.02±0.51	2.36±0.50	<0.001***

***p<.001, **p<.01, *p<.05

- 1: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the elderly.
- 2: I don't want to go to the elderly's meeting even if I am invited to.
- 3: I don't want to live with the elderly.
- 4: I am very happy to spend time with the elderly.
- 5: I don't like when the elderly talk to me.
- 6: Most of the elderly are interesting and are unique in their way.
- 7: I avoid eye contact with the elderly.
- 8: The elderly is better off living apart from others to avoid bothering them.
- 9: Most of the elderly should not be allowed to renew their driver's licenses.
- 10: The elderly in fact does not need local sports facilities.
- 11: The elderly deserves to have equal freedom and rights as other members of our society.
- 12: When I hear about difficult situations of the elderly, I feel sad.

3.3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Table 3과 같다.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1.92점, 노인 동거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2.23점으로 나타났다($p<.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 전체 점수는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7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 2.44점으로 나타났다($p<.001$). 정서적 회피의

세부항목 중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00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64점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1.72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29점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차별 전체 점수는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 1.92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 2.23점으로 나타났다($p<.001$). 차별의 세부항목 중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21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97점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응답한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1.27점,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1.64점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Ageism by the experience in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Characteristic	Experience in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P
	Yes(N=47)	No(N=162)	
	M±SD		
1	1.78±0.83	2.55±0.79	<0.001***
2	2.00±1.04	2.64±0.86	<0.001***
3	1.72±1.01	2.29±0.91	<0.001***
4	2.80±1.26	2.82±0.70	0.948
5	1.61±0.84	2.03±0.94	0.005**
6	2.72±1.24	2.86±0.78	0.466
7	1.85±0.99	1.92±0.91	0.630
Emotional avoidance	2.07±0.68	2.44±0.59	<0.001***
8	1.40±0.79	1.66±0.84	0.059
9	2.21±1.41	2.97±1.05	<0.001***
10	1.42±0.77	1.40±0.55	0.841
11	1.27±0.49	1.64±0.88	<0.001***
12	2.29±1.19	1.96±0.90	0.044*
Ageism	1.72±0.50	1.92±0.52	0.017*
Total	1.92±0.51	2.23±0.51	0.001**

***p<.001, **p<.01, *p<.05

- 1: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the elderly.
- 2: I don't want to go to the elderly's meeting even if I am invited to.

- 3: I don't want to live with the elderly.
- 4: I am very happy to spend time with the elderly.
- 5: I don't like when the elderly talk to me.
- 6: Most of the elderly are interesting and are unique in their way.
- 7: I avoid eye contact with the elderly.
- 8: The elderly is better off living apart from others to avoid bothering them.
- 9: Most of the elderly should not be allowed to renew their driver's licenses.
- 10: The elderly in fact does not need local sports facilities.
- 11: The elderly deserves to have equal freedom and rights as other members of our society.
- 12: When I hear about difficult situations of the elderly, I feel sad.

3.4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Table 4와 같다.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2.05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 전체 점수는 2.30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 전체 점수는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2.23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 2.52점으로 나타났다($p < .01$). 정서적 회피의 세부항목 중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15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66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2.23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2.82점으로 나타났다($p < .001$). 노인 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차별 전체 점수는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1.80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 1.98점으로 나타났다($p < .05$). 차별의 세부항목 중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점수는 1.37점,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점수는 1.88점으로 나타났다($p < .001$).

3.5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노인 동거 경험은 노인의 차별($r = -0.309, p < .01$)과 노인의 정서적 회피($r = -0.265, p < .01$)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r = 0.148, p < .05$)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은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r = 0.367, p < .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노인의 정서적 회피($r = -0.247, p < .01$)와 차별($r = -0.164, p < .01$)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은 노인의 정서적 회피($r = -0.233, p < .01$)와 노인의 차별($r = -0.174, p < .01$)에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의 정서적 회피는 노인의 차별($r = 0.624, p < .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Ageism by the experience in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Characteristic	Experience in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p
	Yes(N=116)	No(N=93)	
	M±SD		
1	2.15±0.80	2.66±0.85	<0.001***
2	2.23±0.95	2.82±0.81	<0.001***
3	2.10±0.99	2.24±0.92	0.207
4	2.81±0.90	2.82±0.80	0.883
5	1.80±0.84	2.10±1.02	0.022*
6	2.65±1.00	3.05±0.71	0.001**
7	1.86±0.75	1.96±1.11	0.417
Emotional avoidance	2.23±0.60	2.52±0.03	0.001**
8	1.37±0.65	1.88±0.95	<0.001***
9	2.73±1.23	2.89±1.10	0.333
10	1.33±0.60	1.49±0.60	0.060
11	1.50±0.77	1.63±0.88	0.243
12	2.06±0.96	2.02±1.02	0.780
Ageism	1.80±0.42	1.98±0.61	0.016*
Total	2.05±0.47	2.30±0.57	<0.001***

*** $p < .001$, ** $p < .01$, * $p < .05$

- 1: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the elderly.
- 2: I don't want to go to the elderly's meeting even if I am invited to.
- 3: I don't want to live with the elderly.
- 4: I am very happy to spend time with the elderly.
- 5: I don't like when the elderly talk to me.
- 6: Most of the elderly are interesting and are unique in their way.
- 7: I avoid eye contact with the elderly.
- 8: The elderly is better off living apart from others to avoid bothering them.
- 9: Most of the elderly should not be allowed to renew their driver's licenses.
- 10: The elderly in fact does not need local sports facilities.
- 11: The elderly deserves to have equal freedom and rights as other members of our society.
- 12: When I hear about difficult situations of the elderly, I feel sad.

3.6 노인관련 경험이 노인의 정서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의 정서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6과 같다. 노인 관련 경험 중 노인 동거 경험($p<0.001$),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p<0.01$)과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p<0.0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associated variable

	1	2	3	4	5
1	-				
2	.148*	-			
3	.044	.367**	-		
4	-.265**	-.247**	-.233**	-	
5	-.309**	-.164*	-.174*	.624**	-

* $p<0.05$, ** $p<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2: Experience in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3: Experience in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4: Emotional avoidance of the elderly, 5: Ageism

Table 6.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n the emotional avoidance of the elderly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 (β)	p
constant	3.523	0.200		$<0.001^{***}$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0.326	0.085	-0.253	$<0.001^{***}$
Experience in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0.211	0.107	-0.139	0.044*
Experience in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0.246	0.089	-0.193	0.006**

*** $p<0.001$, ** $p<0.01$, * $p<0.05$
 $F=11.729$, $p<0.001$, $R^2=0.146$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3.7 노인관련 경험이 노인의 차별에 미치는 영향

노인 관련 경험이 노인의 차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Table 7과 같다. 노인 관련 경험 중 노인 동거 경험($p<0.001$),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p<0.01$)과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p<0.0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n ageism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β	S.E	EXP (β)	p
constant	2.765	0.167		$<0.001^{***}$
Experience in living with the elderly	-0.328	0.070	-0.308	$<0.001^{***}$
Experience in taking elderly-related classes	-0.073	0.089	-0.058	0.416
Experience in volunteering for the elderly	-0.175	0.074	-0.166	0.019*

*** $p<0.001$, * $p<0.05$
 $F=10.514$, $p<0.001$, $R^2=0.133$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4. 고찰 및 결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로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1-3]. 특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 실업으로 인한 세대 갈등은 노인 차별과 홀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1,2,4]. 이에 본 연구는 미래 핵심 구성원인 젊은 세대의 노인 차별의식을 조사하여 그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한 공동체 사회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동거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에서 노인 차별주의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문 등[17]과 정 등[14]의 연구 결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높은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내 세대 간 정서적 소통이 가능하고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차별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2]의 연구결과는 세대 내 가족 결속도가 세대통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에 따라 본 연구결과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1]와 김 등[4]의 연구 결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만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 차별주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 함께 동거 경험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노인 차별주의의 영향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경로효친 사상 계승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정 등[14]과 노인과의 단순한 동거 경험을 넘어 경험의 만족도가 노인 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1]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과의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동거 경험의 질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10,14]. 이는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조부모에 의한 양육은 물론 조손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1], 공동체 사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세대 간 긍정적 소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접촉 기회를 마련하고 가족 내 세대 간의 긍정적 동거 경험을 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의 조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연령 통합에 의한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노인 차별주의 해소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생애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한 한[13]의 연구 결과, 교육 이전에 비해 교육 이후 노인에 대한 차별 의식 및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여 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노인 관련 수업 이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은 물론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김 등[3]의 연구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며, 노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과 같은 학교 정규 교육에 노인 관련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8]의 연구는 본 연구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생의 노인 관련 강의 경험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문 등[17]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 관련 교육에 있어서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의존적 형태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17]. 따라서

대학에서의 올바른 노인 관련 교육은 노인 세대와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적 거리감이 증대되고 있는 대학생과 같은 젊은 세대의 노인 차별주의를 예방하고 세대 간 이해를 통한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8,12]. 이에 대학은 노인과 노화 그리고 노인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노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고령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숙한 인적 자원 배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12].

셋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노인 차별주의와 그 하위요인인 정서적 회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대학의 역할이 학문 연구를 넘어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12], 본 연구 결과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과 노인 차별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학의 실천적 역할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치매 관련 지식과 태도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대한 윤[18]의 연구결과 치매 봉사경험과 치매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노인부양의식에 긍정적 태도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하였으며,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한 김[4]의 연구 결과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없을 경우 노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연구한 정 등[14]의 연구결과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을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대학 시기에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는 성인기 전반에 지속되므로[18], 대학 시기의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은 고령사회의 주요한 주체가 되어 직접적 영향을 주고 받게 될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 노인 관련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시켰을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3], 노인 대상 봉사활동에 있어서 봉사 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낮게 나타났다[1]. 따라서 대학 교육은 대학생의 전공 관련 사회봉사 활동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19], 노인 관련 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봉사 활동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경험과 노인 차별주의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노인 동거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과 정서적 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과 정서적 회피가 감소하였고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과 정서적 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노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과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노인 차별주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이[1]의 연구와 일치하며, 노인 관련 자원봉사의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차별주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 등[12]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동기의 세부 항목 중 이해 기능적 동기 수준이 노인 차별주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 기능적 동이란 봉사활동을 하기 전 실천하기 어려웠던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12]. 따라서 전공과 관련한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실시한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이해 기능적 동기 수준의 기회를 부여하여 노인 대상 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공 분야의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전공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공과 미래 직업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확신에 갖게 하여 취업을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따라서 대학은 봉사 활동의 동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공 분야의 노인 관련 봉사활동과 관련한 대학 내 봉사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동거 및 봉사활동과 강의 수강 경험이 노인의 정서적 회피와 노인 차별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의 노인 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노

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 접촉 빈도가 높게 나타난 장[9]의 연구와 대학생의 세대 간 가족 결속도가 노인차별 행동 감소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손[2]의 연구가 본 연구 목적과 일맥상통하여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손[2]의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교육의 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접촉 교류가 제한되어 탈 가족화 사회를 사는 젊은 세대를 위한 가족과 부모 그리고 가족 결속도에 대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대학은 가족이라는 경계를 초월하여 부모와 사회 전반의 확장된 가족 결속도 함양을 위하여 노인 관련 강의 수강 및 봉사활동 등의 융합 교육으로 세대 통합의 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2]. 또한, 지역사회는 핵가족 중심의 현대사회의 조손 가족과 조부모 양육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1], 세대 간 긍정적 동거 경험을 위한 세대 통합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조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오늘날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주제로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될 젊은 세대의 올바른 공동체 의식 함양과 노인 세대와의 사회적·신체적·정서적 공감의 장 형성에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공동체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1,2,18].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체 사회 구성원 간의 긍정적 소통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차별의식 제고 방안은 물론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노인차별의식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로 인한 젊은 세대의 노인 차별의식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 정책의 방향과 실천 방법을 논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8], 본 연구 결과가 공동체 사회의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K. S. Lee. (2019). *A Study on the Image of the Elderly and Ageism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Comparing Age & Gender Group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2] J. A. Son. (2019).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ilial Responsibility on Ageism Behavior: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23(1), 75-99.
- [3] S. Y. Kim, T. H. Sohn, S. J. Chang & K. J. Moon.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1), 53-84.
DOI : 10.21194/kjgsw.71.1.201603.53
- [4] S. Y. Kim & M. S. Youn. (2018). Factors Influencing the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11), 369-378.
DOI : 10.5392/JKCA.2018.18.11.369
- [5]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243-246.
- [6] M. H. Kim. (2013). The Influence of Elderly Contact,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Death Anxiety on Ag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3), 435-456.
- [7] R. N. Butler,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DOI : 10.1111/J.1540-4560.1980.TB02018.X
- [8] W. Kim. (2002). Ageism as a form of oppression : social response and implications.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14, 97-118.
- [9] H. S. Jang. (2015). *A study on ageism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 [10] J. Y. Lee & G. H. Han. (2017). The Influence of Negative Stereotype Towards the Elderly and Aging Anxiety on Korean's Attitudes about Sharing Space and Time with the Elderl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1(2), 1-30.
DOI : 10.21562/kjs.2017.05.51.2.1
- [11] H. N. Kang. (2018). Effects of Media Use and Social Norms Toward Older Adults on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3), 873-884.
DOI : 10.22143/HSS21.9.3.64
- [12] H. J. Jeon & K. J.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Frail Aged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ged and the Awareness of Supporting on th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79-207.
- [13] H. K. Han. (2010). The Effects of an Aging Simulation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3(31), 75-93.
- [14] S. H. Jung & E. H. Kim. (2013). Original Article :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6), 1071-1077.
DOI : 10.13065/jksdh.2013.13.06.1071
- [15] S. K. Gordon & D. S. Hallauer, (1976). Impact of a Friendly Visiting Program on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A Pedagogical Note. *Gerontologist*, 16(4), 371-376.
- [16] W. K. Whang. (2016). *KB Knowledge Vitamin: Understanding the University-linked Retirement Community and its Tasks for Utilizing the Financial Sector*. KB Financial Holding Management Institute(Onlie).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1003310>
- [17] S. R. Moon, M. C. Kim, M. S. Lee & N. J. Kim. (2015). Study on Attitude of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through social science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57-163.
DOI : 10.15207/JKCS.2015.6.5.157
- [18] M. J. Yun. (2019).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1), 419-426.
DOI : 10.14400/JDC.2019.17.11.419
- [19] S. E. Heo. (2016).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85-96.
DOI : 10.15207/JKCS.2016.7.4.085

장경애(Kyeong-Ae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의학 전공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의학 전공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 E-Mail : jka@silla.ac.kr

허성은(Seong-Eun Heo)

[정회원]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1년 8월 ~ 2014년 12월 :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 교수

- 2015년 2월~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과학, 치위생 융합 연구
- E-Mail : js1424@silla.ac.kr